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e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울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정민자

Dept. of Home Management, Ulsan Univ.
Associate Professor : Min Ja Jeoung

〈목 차〉

- | | |
|-----------------|-----------------|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IV. 요구도의 결과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프로그램의 모형과 내용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VI. 결론 |
|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e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PREP).

This Program was based on survey (416 data used) for the need of PREP.

The results was as followings :

1. The object wanted that the curriculum were included marital values, love and intimacy, communication skill, understanding of personality, good relationship of both parents, adaptation of both families, healthy self-image, sex knowledge, constructive conflict-solving, financial management skill, reasonable decision-making, family planning, marital roles, concrete marriage readiness.

2. They suggested that variety of methods and proposals.

3. So, this program were designed that ① Belongness and autonomy ② Marriage and value ③ Sex knowledge ④ Communication skill ⑤ Sex role and our future

* 본 논문은 1994년 교육부지원 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 육성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결혼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중요한 관문이자 전환점이며 발달과업이다. 대체로 결혼 생활은 성인기를 통해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과정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결혼제도와 결혼 가치관은 변화해 왔다. 과거에는 일처다부제 (polygamy)나 가부장제가 중요제도체이며 가치관이었지만, 현대사회는 일부일처제 (monogamy)이며 부부평등 가족을 지향하고 있다(이효재, 1990). 따라서 결혼에 대한 가치와 남성과 여성의 역할, 성(sexuality)의 욕구와 가치수준, 자녀의 가치, 가족관계의 질도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배우자 선택연구에서 보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과거와는 매우 다르다. 즉 결혼의 목적이 집의 영속을 위한 수단이었던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닌,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배우자 선택도 개인적 동기보다는 가문이나 경제적 지위에 치중되었으며 그 결정권도 부모에게 집중된 중매혼이었다. 그러나 남녀평등 사상의 보급과 개인주의의 만연 등으로 결혼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 추구, 자아실현 등으로 변화하면서 두 사람간의 애정, 인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동기에 치중하고 있으며 당사자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자유혼으로 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택조건 및 성에 대한 가치가 현대화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혼에 대한 가치를 심사숙고하고 가치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1960년대부터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형태적으로 서구의 핵가족과 유사한 모습을 하게 되었고 가족 가치관 면에서도 과거보다 부부간에 서로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이는 변화는 이혼률의 증가이다. 전세계적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고(이태영, 1987), 이혼의 70%가 결혼생활 2~3년 사이에 일어나며, 이혼사유 중의 중요한 이유가 부부간의 불화, 부정, 성격차이 등으로 일어난다. 그중에서 부부간의 불화로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 이혼의 85.1%를 차지한다(한국여성통계연보, 1994).

이것은 결혼 이전에 이미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하거나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족 상담 및 치료등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준비교육을 보충하는 방법이다. Marriage Encounter 운동을 시작한 스페인의 Calvo신부는 문제가정에서 시작되며 문제가정은 결국 건강하지 못한 결혼 생활, 다시말해 '질 낮은 부부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인격적 결합은 다음 세대에서 더욱 심한 양상으로 재생산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혼을 부부의 적응과정이란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이 적응과정은 결혼식 이전, 즉 남녀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또한 이 부적응 과정은 제도적 가족에서 보다 우애적 가족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애적 가족 즉 평등주의와 개인주의에 바탕하여 상호애정으로 결합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에 기반을 둔 우애적 가족은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제도적 가족하에서는 크게 필요치 않았던 대인관계의 능숙한 운영에 관련된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기술, 갈등해결기술등의 준비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과도기적 변화 과정에서 부부중심의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은 젊은층들이 우애적 가족으로서 평등한 남편과 아내의 태도, 역할 및 관계를 가정생활 경험속에서 역할모델의 결핍으로 인해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부부중심의 가정이 바람직하다는 막연한 이상만을 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여 영위해 나갈 경우 개인의 갈등 및 결혼관계의 낮은 질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예방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가 청소년, 예비부부들 및 신혼부부들에게 광의 및 협의의 결혼 준비교육을 행함으로써 성공적인 결혼 생활 즉 원만한 부부적응과정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 태도 및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종전의 신부교실 등이 미혼 여성이나 예비신부들에게 요리, 예절, 살림살이와 부덕을 가르쳤던 것과 달리 미혼 남녀 및 예비부부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성숙과 준비 등의 정신교육을 강조하는 결혼 준비 강좌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혼 준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 또한 민간차원에서 일어나고 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결혼 준비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보급이 시급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행하고자 한다.

- 첫째, 미혼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방향과 요구도는 어떠한가?
- 둘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한 실시 방법은 어떠한가?
- 셋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모델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준비프로그램의 현황

결혼준비교육은 1924년 Ernest Groves가 보스턴 대학에서 정규강좌를 시작한 이래 결혼생활상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결혼준비프로그램은 크게 ① 일반적인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② 결혼이전 상담프로그램 ③ 결혼강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Arcus, 1993).

첫번째 일반적인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미국의 경우, 대학과 고등학교는 가족생활교육을 통하거나 지역사회 성인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어 왔다(Fitzpatrick, 1992). 구조화된 프로그램내에서 결혼과 관계에 관한 지식을 얻고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게 된다. 즉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정보의 획득(결혼관련), 기술개발(대화, 문제해결, 의사결정), 결혼가치와 태도(부부역할기제) 등을 포함한다.

고등학교에서도 상당히 시행하지만 교사들은 다양한 교과과정을 넘어선 과정은 없고, 주로 개인상호

간의 기술습득, 결혼가치관, 결혼개념 등에 초점을 맞춘다(Farnden, 1991).

대학의 경우는 특별한 교재를 사용하고 구조화된 교실수업을 한다. Kohl(1990)은 친밀감, 결혼, 가족 관계에 관련되는 특별한 주제를 개인적으로 언급하고 이에 도움을 주는 질문과 응용을 포함한다.

Avery, Ridley, Leslie and Handis(1979)의 연구에서도 파트너가 있는 짝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학습동기가 높고, 과목과 결혼교육수업에 더 적절하였다고 보고했다. 지역사회교육으로 되는 경우는 보통 덜 구조적이고 덜 학술적이며, 주제 역시 교과서 외에 잡지나 대중서적 등을 통제 소재로 얻기도 한다(Fitzpatrick, 1992).

둘째, 결혼전 상담프로그램은 약혼자들이 부부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주로 목사나 교회 훈련에서 수행된다. Stahmenn과 Hiebert(1984)는 결혼전 상담의 목적은 결혼전 관계를 고양시켜, 그들이 더욱 만족하고 안정적인 결혼동반자로 발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개인상담 또는 집단토론의 방식을 통해 운영한다. 개인상담의 장점은 경제적이고 적은 수수료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한 부부의 고유성과 사고에 초점을 둘 수 있다. 그런 반면에 단점은 다른 커플로부터 역할의 다양성이나 관찰을 할 수 없다. 그에 비해 집단상담의 토론 방식은 다른 커플과의 관계 비교를 할 수 있고, 관계에 대해 더 현실적이 되도록 돕는다. 즉 다양한 사람의 문제와 해결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촉진적인 발달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단점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제와 속사정을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개인상담프로그램과 집단상담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법이다. Nickols(1986) 등은 과정중심지향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강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피하고, 일일프로그램보다 충분히 지속되는 프로그램, 결혼전 3~6개월 사이에 실행하고, 각 커플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과 결혼에 관련된 정보의 내용을 제공하고, 각 커플에게 맞는 특별한 정보를 중심으로 상담하라고 제안한다. 특히 평가를 위해서는 결혼후의 상담이나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 시행 1개월전, 결혼후 1기간전 1개월, 결혼 1주년기념일 1~2주의 3번 평가를 통해, 인터뷰를 통해 실험평가를 하여 통제집단과 비교한다. 실제연구에서 실험집단이 갈등해결 등에서 탁월한 증가가 있고, 향후 5년간의 비교에서도 별거, 이혼율이 적었다(Bader, 1980). 이 경우는 결혼전 교육 및 상담은 예비단계를 넘어 결혼후까지 지속적이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 강화프로그램으로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최근에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풍요로운 결혼은 성장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모든 관계는 적절한 상황에서 좋은 만남과 과정교육을 통하여 발전된다. Hof와 Miller(1980)는 이 과정을 ㉠ 활동적이고, 경험적이고, 교육적이며, 본질적으로 예방차원이다. ㉡ 관계와 개인성장을 지향하며 ㉢ 현재의 만남을 통해 좋은 결혼으로 가도록 하며 ㉣ 긍정적 관계 발전을 지향하고 ㉤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강조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 모델의 지도자들이 기술과 성장 지향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들의 목표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자아성장, 인식을 증가시키고, 정직하고 공감을 가지고 사고와 감정을 탐구하고, 대화기술향상, 문제해결, 갈등해결과 같은 관계상에서 중요한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주말 휴양지나 주말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별한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덜 구조화된 방법을 쓰기도 하나, 대체로 고도로 구조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결혼한 부부, 개인, 전문가 등) 지도되며, 다양한 계층, 비전문적 과정, 훈련의 정도, 지도력의 형태에 따라 여러 형태로 주도된다. 결혼관계강화프로그램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다양한 내용은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어떤 내용이 어떤 길이로 누구에 의해 가장 효과가 있는가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화프로그램으로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하고자 한다.

2.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구성

(1) 프로그램의 의미

프로그램(또는 커리큘럼)이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조화된 학습과정이다. 커리큘럼은 학교교육과 관련되는 반면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학교(지역사회센터 등)에서 행해질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① 내용으로서 ② 경험으로서 ③ 계획으로서 프로그램이 있다. 내용으로서 프로그램이란 주제에 대한 개요나 목록으로 기술하여 지식의 조직화에 중점을 둔다. 경험으로서 프로그램이란 실행될 때의 참여자의 경험을 강조하며, 계획으로서 프로그램이란 교육의 내용과 교육방법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강의계획에 초점을 둔다(Jame Thomas et al., 1993). 본 연구는 계획으로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프로그램의 구성 방법

프로그램 구성모형은 욕구 및 흥미분석, 목표설정, 내용구성, 실시계획, 평가계획으로 나뉘어진다(김혜석, 1990). 결혼 요구 및 흥미분석은 실제적인 고려로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생활에서 오는 시간적 제약과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정된 결혼 준비 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요구 중 우선순위의 순서에 따라 필요한 양의 요구를 선택해야 한다. 즉, 평가 분석된 성인 학습자들의 욕구 및 흥미는 실현 가능성이라는 질적 선별단계와 교육시간이라는 양적인 선별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별은 교육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교육시간에 의한 판별은 해당 프로그램의 단위 시간수를 기준으로 적당량의 요구를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하는 것이다.

목표설정에서 성인교육은 학교 교육과 달라서 교과서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성인의 직업적, 사회적 역할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중심으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학습내용의 선정과 조직으로 구분되는 데, 학습내용의 선정기준은 교육목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습내용을 교육목적에 성취시켜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영주(1984)는 학습 경험의 선정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습하는 기회와 장소등 환경을 제공하고, 성인 학습자들이 그 코스에서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학습의 근본적인 문제는 학습자가 참여하는 활동이며, 가장 오래 기억될 학습경험은 흥미와 생생함과 강렬함이 있어야 한다. 학습은 집단 단위로서 이루어지더라도 개인적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성인 학습자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진전 상황을 알아야 한다. Kidd (1976)는 교육내용의 선정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①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이 있는 것
- ② 실생활과 관련된 것
- ③ 제한된 학습 시간내에 학습할 수 있는 것
- ④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적합한 것
- ⑤ 교육 내용 상호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
- ⑥ 전체 내용 체계에서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등이다.

학습내용의 조직은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결혼 준비 프로그램이 결혼 생활이라는 실생활에서의 적용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도 형성 및 기술 형성을 위한 내용이 지식 습득을 위한 내용보다 더 강조되는 경향이다.

1) 프로그램 운영계획

먼저 프로그램 운영계획에서는 실시 시작 시기, 실시장소, 담당자, 실시기관, 홍보 및 광고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프로그램 교육시간 결정을 교육 총시간의 결정과 결정된 시간의 운영방법으로 구분된다. 총시간이 결정되면 모임간의 시간간격, 모임 실시시간, 일회 모임의 소요시간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실시지역, 성인 학습자 집단의 특성, 실시기관의 성격, 프로그램의 실시목적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 역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안의 제시보다는 실시지역, 성인 학습자 집단의 특성, 실시기관의 성격,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 및 성격 등의 제반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운영계획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대상들에게 요구도를 조사해 보게 된다.

2) 교수 학습 활동계획

교수-학습활동은 학습자가 학습을 통하여 교육목표를 최대로 성취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교수-학습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교수기술은 학습내용이 제시되는 기법을 말하는데,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과 기능을 통해 가장 잘 배우므로 그룹토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연습, 역할놀이, 현장 프로젝트, 실험실훈련, 시범보이기, 세미나, 청중참여발표, 기술훈련연습등의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는 방법들이다. 즉 교수-학습의 형태는 교사가 자신의 능력, 학습내용, 학습자의 제반특성, 물리적 조건등의 상황적 요소등을 분석한 뒤에 적합한 방법, 기술, 장치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대체로 상호과정은 그 준비단계인 성인학습을 위한 분위기 수립 단계와 실제 상호계획단계인 학습자의 자기요구 진단단계, 학습목표 확인 단계, 학습활동 및 실행단계인 4단계의 하위단계로 구성된다. 교육적 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취하고자 의도한 교육목표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목표로 재서술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해당학습에 참여하기 직전에 행동패턴을 측정하고 학습직후에 학습자의 행동패턴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성인교육에서의 평가는 학습결과보다는 학습과정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므로 이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측정도구에 의한 형식적 평가보다는 교사가 관찰, 대화, 설문지등을 통해 수시로 실시하는 비형식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도구에 의한 형식적 평가를 보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프로그램의 내용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이혼발생원인을 연구한 결과,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파트너에 대한 이해부족, 사랑과 헌신 및 결혼에 대한 이해부족, 자신과 파트너의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부족, 명백한 의사소통의 필요, 성과 성욕, 돈문제, 신앙적인 이해부족, 비현실적인 기대, 역할과 역할수행의 혼란이 가장 자주, 가장 고통스러운 영역으로 지적되었다. Harrington(1984)은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해야한다고 했다. Shell(1981)은 예비부부들과 결혼전 4회, 결혼후 1회의 모임을 통해 결혼전상담설문조사, 테일러-존슨 기질분석검사, 성지식 설문조사, 결혼전 의사소통 목록표등의 5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활용하여 일반영역, 기질, 성, 의사소통 영역등에서의 예비부부 서로간의 적응을 돕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Huff는 협의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영역으로 주거문제, 가정문제, 및 금전문제, 출신가정배경 및 성장배경, 직업 및 성공, 교육, 건강 및 신체적 운동, 종교적 문제, 인척관계, 자녀, 성적태도 및 문제, 여가활동, 결혼예식 준비,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패턴, 갈등해결, 역할기대등을 들고 있다. 결혼준비 교육내용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내용분석연구인 Ferris(1985) 논문에서는 결혼준비에 관해 발행된 책, 석사 박사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잡지기사, 측정도구, 팸플렛등의 총 192가지 문헌들을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결혼준비교육에 포함된 내용들은 크게 개인내적 영역, 상호관계 영역, 개인외적 영역, 철학적 영역, 기타 영역, 기술에 관한 영역인 6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

Ferris의 영역구분에서 특이한 것은 '기술에 관한 영역'이 따로 설정된 것이다. 이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최근의 평가연구 결과를 근거로, 결혼준비교육 전문가들이 기술훈련에 기초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술영역을 설정한 것이다.

각 영역에서 문헌상의 언급빈도가 높은 내용을 보

면 개인내적 영역에서는 정서적 문제들, 가족배경, 상호관계 영역에서는 성생활, 재정, 의사소통, 역할, 파트너의 요구인지, 외적영역에서는 인척관계, 고용, 직업, 친구, 철학적 영역에서는 신앙, 사랑의 정의, 바람직한 결혼, 기타 영역에서는 신체적 건강, 결혼 연령 및 성숙정도, 카운슬링, 사회적 유사성, 기술영역에서의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기술, 강화기술, 재정적 관리기술 등이었다.

성공적인 결혼준비와 성취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위 내용들을 적절한 형식을 갖고 쓰게 된다. <표 1참고>

<표 1> 결혼준비 프로그램의 관심 내용

1. 공약으로서의 결혼(결혼목적, 의미)
2. 가족 유래와 개인적인 배경
3. 배우자의 성격과 인성(例 ; 적응, 유머)
4. 대화기술
5. 결혼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
6. 상호작용 과정의 부분
7. 갈등을 해결하려는 기술
8. 의사결정 기술
9. 재정적 원천과 관리기술
10. 여가 선용에의 관심
11. 교육적 작업과 직업 목표와 기대
12. 상관계와 애정에 관한 정보
13. 자녀와 부모에 대한 기대 및 자녀양육
14. 종교적 또는 정신적 가치와 기대
15.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인식되는 힘
16. 결혼에 대한 계획

김혜석(1990) 연구에서는 22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결혼준비교육의 하위내용으로 선정하였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는 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실행하고자 미혼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학습조건과 내용을 분석해 보고, 그 자료에 기초하여 본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표 2〉 결혼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

1. 바람직한 결혼관 정립
2. 결혼변화 이해와 동반자로서 부부
3. 의사소통기술 습득
4. 서로의 성격이해
5. 건강한 자아상 확립
6. 성장배경과 가정배경 이해와 적용
7. 결혼생활, 배우자, 관계에 대한 기대
8. 자녀 출산 및 양육지식
9. 건설적인 갈등해결기술
10.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11. 서로의 역할 기대와 적용
12. 재정기술과 금전관리
13. 양가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14. 성지식 습득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와 환경조건을 미혼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1995년 4월 10일-29일까지이며 600부를 배포하였고 그 중 433부가 회수되어 416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남성 209명, 여성 207명이며 25세이하가 60%, 26세이상인 40%이다. 학력은 고졸이 24.8%, 전문대졸이상인 75.2%이다. 이성교제 중인 경우가 48.7%, 아닌 경우가 51.7%이며 교제기간이 6개월 미만이 15.4%, 6개월-1년미만이 26.8%, 1년-2년미만이 36.6%, 2년이상인 21.4%로 나타났다.

결혼약속은 교제중인자(201명)에서 49.3%가 약속하였고 1년 이후에 예정하고 있는 비율이 70.7%였다. 파트너 가족을 아는 정도는 매우 잘 알거나(21.2%), 조금 아는 정도(69.7%)로서 어느정도 교류가 있었다. 이들은 부인의 취업은 어느정도 당연히 여기며(22.1%), 상황에 따라 다르다(69.5%)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사분담은 부부가 공동분담해야 한다고(64.9%)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개인 배경을 알기위해 22문항, 프로그램내용에 대해 15문항, 프로그램구성방법에 관해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부부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성지식', '바람직한 결혼가치관의 정립', '가정경영 및 가계관리에 관한 지식 갖추기', '남편과 아내로서 책임과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 '미래의 가족계획(피임법등)', '양가의 가족관계에 대한 적용과 이해', '사랑과 친밀감의 형성 및 유지방법', '부부간의 대화방법', '성격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구체적인 결혼 준비과정(혼수, 결혼비용, 예식등)에 관한 논의', '건강한 자아상 확립하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 익히기', '양가부모와 좋은 관계 형성하기', '건설적인 갈등해결 방법과 기술 익히기', '자녀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식 익히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매우 필요하다(4점)', '약간필요하다(3점)', '별로 필요하지 않다(2점)', '필요하지 않다(1점)'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본 자료분석은 일반적 경향을 알기위해 주로 평균과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수준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한 반응별 빈도 및 요구수준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요구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바람직한 결혼가치관의 정립(M=3.768)'과 '사랑과 친밀감의 형성 및 유지방법(M=3.768)' 그 다음으로 '부부간의 대화방법(M=3.763)', '성격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기(M=3.743)', '양가부모와 좋은 관계 형성하기(M=3.662)',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에 관한 지식 익히기(M=3.659)', '건강한 자아상 확립하기(M=3.580)', '부부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성지식

〈표 3〉 교육내용에 관한 반응별 빈도 및 요구수준
(4점 척도의 평균값 N=416명)

교육내용	평균요구 수준	순 위
바람직한 결혼가치관의 정립	3.768	1
사랑과 친밀감의 형성 및 유지방법	3.768	1
부부간의 대화방법	3.763	3
성격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3.743	4
양가부모와 좋은 관계 형성하기	3.705	5
양가의 가족관계에 대한 적응과 이해	3.662	6
자녀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식 익히기	3.659	7
건강한 자아상 확립하기	3.580	8
부부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성지식	3.577	9
건설적인 갈등해결 방법과 기술 익히기	3.558	10
가정경제 및 가계관리에 관한 지식 익히기	3.531	11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 익히기	3.525	12
미래의 가족계획	3.494	13
남편과 아내로서 책임과 역할분담에 관한 논의	3.448	14
구체적인 결혼 준비 과정에 관한 논의	3.271	15

(M=3.577)’, ‘건설적인 갈등 해결방법과 기술 익히기(M=3.558)’, ‘가정경제 및 가계관리에 관한 지식 익히기(M=3.531)’,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 익히기(M=3.525)’, ‘미래의 가족계획(M=3.494)’, ‘남편과 아내로서 책임과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M=3.448)’, ‘구체적인 결혼 준비 과정에 관한 논의(M=3.271)’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능한 한 결혼준비교육의 관심내용은 모두 다루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교육자는 과정중심으로 본 내용을 가능한 포함하는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하다.

2. 프로그램 실시 방법에 관한 요구도

본 내용은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방법에 관한 요구도 조사이다. 그 내용에는 실시시기, 실시회수, 실시요일, 교육비용, 실시자 및 실시기관, 실시장소 등에 대해 결혼 준비자들의 요구도와 그들이 참여한다면 커플이 참여할 것인지의 참여단위 및 어

떤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좋은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첫째,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96.4%(401명)가 받은 경험이 없으며, 그 이유를 보면, ‘아직 결혼 계획이 없어서’가 45.6%(183명)으로 가장 높고, ‘교육하는 곳이 있는 줄 몰랐던 경우’가 19.5%(78명), ‘교육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경우’가 15%(60명), ‘알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은 경우’가 8.9%(3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남녀 및 결혼 준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 결혼전 2개월 전부터가 40.9%(17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4~6개월 전부터가 33.7%(140명), 10개월 전부터가 7.9%(33명), 1개월 이내가 7.5%(29명), 7~9개월 전부터가 6.7%(2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전 2~6개월 전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1주일 1회 모임을 3시간으로 할 경우 최소한 몇 회의 모임이 필요한가라는 문항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회수로는 1~2회로 53.4%(222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3~4회로 22.4%(93명), 5~6회는 11.5%(48명)이며, 전문가의 계획에 따라서가 9.1%(38명)으로 나타났으며, 7회 이상이 2.4%(10명)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결혼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1주일 1회 모임 3시간 가질 경우 1~2회의 모임을 가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나타났다.

넷째,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할 때 가장 적당한 요일은 언제가 좋은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가장 많이 원하는 요일이 토요일로 36.3%(151명)이며, 그 다음으로 금요일 18%(75명), 수요일 13.9%(58명), 일요일 8.9%(37명), 화요일 7.2%(30명), 월요일 5.5%(23명), 목요일 3.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1주일 1회 3시간씩 4회 실시할 경우, 가장 적당한 교

〈표 4〉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 참가 여부

변 수	구 분	N	%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참가경험	예	12	2.9
	아니오	401	96.4
	무응답	3	0.7
	전체	416	100.0
참가하지 않은 이유	아직 결혼 계획 없어서	183	45.6
	교육하는 곳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78	19.5
	교육받을 필요를 못 느껴서	60	1.5
	알았지만 여건이 안돼서	36	8.9
	교육 효과에 자신에 없어서	13	3.2
	기타	11	2.8
	무응답	20	5.0
	전체	401	100.0
실시시기	1개월 이내	29	7
	2~3개월 전부터	170	40.9
	4~6개월 전부터	140	33.7
	7~9개월 전부터	28	6.7
	10개월 전부터	33	7.9
	기타	13	3.1
	무응답	3	0.7
	전체	416	100.0
실시회수	1~2회	222	53.4
	3~4회	93	22.4
	5~6회	48	11.5
	7회 이상	10	2.4
	전문가 계획에 따라	38	9.1
	무응답	5	1.2
	전체	416	100.0
실시요일	월요일	23	5.5
	화요일	30	7.2
	수요일	58	13.9
	목요일	13	3.1
	금요일	75	18.4
	토요일	151	36.3
	일요일	37	8.9
	무응답	29	7
	전체	416	100.0

변 수	구 분	N	%
교육비용	4만원 이하	241	57.9
	5~6만원	132	31.7
	7~8만원	13	3.25
	9~10만원	11	2.6
	11만원 이상	4	1.0
	무응답	15	3.6
	전체	416	100.0
실시자	혼련된 기혼부부	120	28.8
	전문가	253	60.8
	결혼 주례자	9	2.2
	종교 지도자	5	1.2
	기타	17	4.1
	무응답	12	2.9
	전체	416	100.0
	실시기관	YMCA등의 사회봉사단체	181
대학이나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		144	34.6
사설학원 등의 민간단체		24	5.8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12	2.9
마을회관 등의 사회복지단체		12	2.9
교회나 성당등의 종교단체		10	2.4
기타		9	2.1
무응답		24	5.8
전체		416	100.0
실시장소		소규모의 토의실	227
	본인이 소속한 직장 및 기관	71	17.1
	강의실	2	14.9
	참가자들의 가정	27	6.5
	교육실시자의 가정	18	4.3
	기타	5	1.2
	무응답	6	1.4
	전체	416	100.0
참여단위	커플이 함께 하면 좋다	256	61.5
	반드시 커플이 함께	110	26.5
	아무래도 상관없다	29	7.0
	혼자라도 상관없다	10	2.4
	남녀로 구분해서	8	1.9
	기타	1	0.2
	무응답	2	0.5
	전체	416	100.0

〈표 4 계속〉

변 수	구 분	N	%
학습조직	자유롭게	354	85.1
	형식에 따라	61	14.7
	무응답	1	0.2
	전체	416	100.0
강의방법	사례연구	99	23.8
	토의	68	16.3
	강의후 간단한 적용 토의	64	15.4
	간단한 도입강의후 후속토의	59	14.2
	강의	56	13.5
	역할놀이	44	10.6
	기술훈련	11	2.6
	기타	1	0.2
	무응답	14	3.4
	전체	416	100.0
	후속모임의 필요여부	예	297
아니오		116	27.9
무응답		3	0.7
전체		416	100.0
후속모임의 형태	교육이 끝난 바로 다음부터 한달에 한번씩 모인다	36	12.0
	결혼한 바로 다음부터 한달에 한번씩 모인다	25	9.3
	결혼후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첫 보임을 갖고 그후 필요하다면 한달에 한번씩 모인다	94	31.3
	결혼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 및 교육이 가능함을 알려준 후 요청이 있는 경우에 모인다	143	47.7
	무응답	2	0.7
	전체	300	100.0

육비용을 물어본 문항에서는 4만원 이하가 57.9%(241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6만원 31.7%(132명), 7~8만원이 3.2%(13명), 9~10만원이 2.6%(11명), 11만원 이상이 1.0%(4명)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1주일 1회 3시간씩 4회 실시할 경우 가장 적당한 교육비용이 4만원 이하가 57.9%(241명)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

로는 아직까지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비용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가격이 싼 방향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섯째, 가장 효과적인 실시자로 전문가가 60.8%(253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훈련된 기혼부가 28.8%(120명)로 나타났으며, 종교지도자가 1.2%(52명)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문가가 60.8%(253명)으로 가장 효과적인 실시자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 대중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실시 기관으로는 YMCA 등의 사회봉사 단체가 43.5%(181명)로 가장 적당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대학이나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으로 34.6%(144명)로 나타났으며, 사설학원 등의 민간단체 5.8%(24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9%(12명), 마을회관 등의 사회복지단체 2.9%(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는 소규모의 토의실이 54.6%(227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본인이 속한 직장 및 기관이 17.1%(71명), 강의실이 14.9%(2명), 참가자들의 가정이 6.5%(27명), 교육 실시자의 가정이 4.3%(1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가장 바람직한 참여의 단위는 '커플이 함께 하면 좋다'가 61.5%(25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반드시 커플이 함께'가 26.5%(110명), '아무래도 상관없다'가 7.0%(29명), '혼자라도 상관없다'가 2.4%(10명), '남녀로 구분해서'가 1.9%(8명)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참여의 단위가 커플이 함께 참여한다가 87%(366명)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

열번째,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학습하면 좋은지에 대한 문항에서 '자유롭게'가 85.1%(354명)로 나타났으며, '형식에 따라'가 14.7%(61명)로 나타났다.

열 한번째,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주로 사용하고 싶은 바람직한 교육 방법으로는 '사

례연구'가 23.8%(99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토의'가 16.3%(68명), '강의 후 간단한 적용 토의'가 15.4%(64명), '간단한 도입강의 후 후속 토의' 14.2%(59명), '강의' 13.5%(56명), '역할놀이' 10.6%(44명), '기술훈련'이 2.6%(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열 두번째,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뒤 후속 모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결과 '예'가 71.4%(297명)이고, '아니오'가 27.9%(116명)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후속모임이 대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 세번째,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뒤 후속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한 형태가 적절한가라는 문항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결혼 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 및 교육이 가능함을 알려준 후 요청이 있는 경우에 모인다'가 47.7%(143명)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결혼후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첫 모임후 필요하다면 한달에 한번씩'이 31.3%(94명), '교육이 끝난 바로 다음부터 한달에 한번씩'이 12%(36명), '결혼한 바로 다음부터 한달에 한번씩'이 8.3%(2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V. 프로그램의 모형과 내용

1. 오리엔테이션

활동(1) : 오리엔테이션 및 신뢰감 형성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 목적 및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서 집단원 상호간의 존중, 솔직성, 경청하기, 지금-여기 그리고 나-너에의 집중 등의 규칙에 대해 설명해준다. 오리엔테이션 강의내용은 참여자의 성격에 따라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을 참조하여 적절히 작성하여 사용한다.

활동(2) : 자기 자신의 소개

집단과정 활성화를 위한 촉진제 게임

활동(3) : 커플 이름짓기

각 커플은 자기 소개를 위해 자기 팀을 위한 명칭

을 하나 정한다.

※ 기대되는 효과

1. 집단에 대한 호기심과 자기 개방이 촉진된다.
2. 신뢰감이 형성된다.
3. 집단 응집력이 생긴다.

〈오리엔테이션 시행절차〉

시간 배정	활 동 내 용	준비물, 비고
10분	1. 지도자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설명한다.	블렌, 메모지
5분	2. 이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10분	3. 각자 자기 이름표를 작성한다.	
10분	4. 각 커플은 자기 쌍의 이름을 짓는다.	
10분	5. 각자 소개	
10분	6. 커플 소개	
10분	7. 노래 및 율동	

2. 제1과정 : 소속하기와 독립하기

본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결혼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1단계는 우선, 서로가 충분히 속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가 뚜렷한 자아를 가짐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자율감을 갖도록 한다.

1) 프로그램의 목표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알아 속함과 자율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첫째, 자신과 상대방의 자아상을 검토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게 한다.

둘째,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파트너의 정서적 영역에 포함되도록 한다(느낌 공유 및 소속감 확인).

2) 프로그램 시행 설계

본 프로그램은 총 3시간 분량으로 크게 속함과 자율의 두 영역으로 분류된다. 속함에 관해서는 느낌 공유하기 및 느낌에 대해 확신감을 갖는 시간이 1시간이고, 자아상 확립을 위한 계획은 1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마지막 한 시간은 커플끼리의 자유로운 토론과정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서는 커플 평가로서 자신들의 토론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평가를 대신하게 한다. 프로그램은 대체로 읽고 자답하는 형식으로 생각을 통해 자기 답변 및 토론형식을 취한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충분히 교육된 자로서 프로그램 촉진자로서의 성격을 띠게 한다.

〈시행절차〉

(1) 속함의 의미

시간배정	활동내용	준비물, 비고
20분	1. 질문지를 받고 나서 답한다.	질문지, 볼펜
10분	2. 질문지 내용을 사실대로 발표한다.	* 질문은
20분	3. 전체 토론	속함의 느낌
10분	4. 커플끼리 마주 손잡기 및 느낌 발표	공유하기 및
10분	5. 질문에 답하고 커플토론	확신감을 갖기 위한 자기
	전체토론	반성적인
20분	6. 휴식 및 환담	내용들

(2) 독립하기의 의미

시간배정	활동내용	준비물, 비고
10분	1. 질문지에 답하기	질문지, 볼펜
20분	발표 및 느낌 공유하기	질문내용
15분	2. 질문지에 답하기	※ 1) 나는
15분	발표하기	누구인가
20분	맺음활동	2) 자기 인생설계

3. 제2과정 : 결혼생활과 가치관

본 프로그램은 혼전 커플들이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혼전에 미리 생각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실제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올바른 결혼가치관을 확립시킨 다음 결혼 생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결혼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함에 초점을 맞춘다.

1) 프로그램의 목표

첫째, 추상적이고 정립되어 있지 않은 막연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집단 토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확립시킨다.

둘째, 피임 및 자녀 계획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해 결혼 후 가족 계획에 도움을 준다.

셋째, 결혼후 부부관계에 있어 배우자의 욕구를 고려해봄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게 한다.

넷째, 결혼후 파트너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기 함으로 혼전에 파트너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다섯째, 저축계획 및 내집마련 계획을 생각해봄으로써 결혼후의 가정경제의 실체를 파악한다.

2)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바람직한 결혼생활 적응을 위한 결혼가치관 확립 프로그램은 결혼 가치관, 가족관계, 가족 계획, 가정 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결혼가치관

본 프로그램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연구에 의해 개발된 결혼에 관한 태도 검사를 실시하므로 스스로 자기의 결혼 가치관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한 후 검사지를 파트너끼리 바꾸어 보아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알게 하고 집단토의를 통해 다른 여러 사람의 생각도 들어봄으로써 무엇이 올바른 결혼 가치관인지를 알게 하는 기본을 제공한다.

② 가족 관계

본 프로그램에서는 결혼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해 본 후 파트너끼리 대화하여 의견을 나누게 한 후 파트너의 의견을 염두에 두고 집단토의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부부 및 친지들과의 관계가 부부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다.

③ 가족 계획

행복한 가정은 건전한 결혼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결혼하려는 남녀는 약혼기에 새로 이를 가정의 생활목표계획을 세울 때 갖고 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시 행 절 차〉

프로그램명	시 간	활 동 내 용	준비물
결혼가치관 확립	5	결혼가치관에 대해 담당자의 설명	검사지펜
	15	검사지를 나누어주고 검사지의 사용방법 설명	
	10	검사실시	
	15	파트너와 바꾸어 보고 의견 교환	
	10	지단 전체 토의 구성원 모두 돌아가면서 느낀점을 이야기하고 질문이 있으면 받고 답한다.	
가족관계	5	가족관계에 대해 담당자의 설명	검사지펜
	10	검사지를 나누어주고 검사지의 사용방법 설명	
	15	검사실시	
	10	집단 전체 토의 구성원 모두 돌아가면서 느낀점을 이야기하고 질문이 있으면 받고 답한다.	
가족계획	5	가족계획에 대해 담당자의 설명	검사지펜 강의안
	15	검사지를 나누어주고 검사지의 사용방법 설명	
	10	검사실시	
	15	강의안을 나누어주고 읽으라고 함	
	10	집단 전체 토의 구성원 모두 돌아가면서 느낀점을 이야기하고 질문이 있으면 받고 답한다.	
가정경제	5	가정경제에 대해 담당자의 설명	검사지펜
	15	검사지를 나누어주고 검사지의 사용방법 설명	
	15	검사실시	
	10	집단 전체 토의 구성원 모두 돌아가면서 느낀점을 이야기하고 질문이 있으면 받고 답한다.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가족계획은 결혼한 다음 또는 임신한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전에 미리 구상을 하여 계획된 출산을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프로그램은 피임 및 자녀 계획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토의해 보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자녀출산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다.

④ 가정경제

가족 구성원은 신혼기 때에 저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서로의 파트너와 함께 저축계

획과 주택마련 계획을 실제로 짜보게 한 뒤 집단 토의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하게 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게 한다.

3) 훈련 방법 및 기간

본 프로그램은 총 세시간 분량으로 결혼가치관 확립, 가족관계, 가족계획, 가정경제의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각 하위 프로그램은 검사지를 실시하여 먼저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알게 하고 다음으로 커플끼리 토의하고 그 다음으로 전체 집단 토의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면 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것을 각각 발표한다.

4. 제3과정 : 성지식

본 프로그램은 혼전 커플들에게 잘못된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 고정되어 있는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 가치관, 성행동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도록 하여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좀더 발전적이고 건전한 관계유지와 앞으로 관계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결혼후 좀더 부부의 생활의 적응을 높이게 될 것이다.

〈시행절차〉

시간 배정	활 동 내 용	준비물, 비고
5분	1.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설명한다.	불펜, 메모지
50분	2. 성지식의 전반에 관한 강의를 한다.	
10분	3. 강의후 질문을 받는다.	
5분	4.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 설명한다.	비디오 테이프
60분	5. 비디오 테이프를 본다.	
20분	6. 비디오를 보고 자사의 소감을 이야기한다.	
5분	7. 프로그램 동안에 느낀 것을 이야기한다.	

1) 프로그램의 목표

본 프로그램은 커플간의 성지식에 대해 얼마나 올바르게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성지식을 전달한다.

둘째, 올바른 성지식의 학습을 통한 건전한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한다.

셋째, 결혼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먼저 성지식의 전반에 걸친 강의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더욱 시사적인 성에 대한 문제를 비디오테이프 본 후 자신이 느낀 것을 토의하여 서로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예방하며, 바람직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5. 제4과정 : 의사소통 훈련

본 프로그램은 혼전 커플들에게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시켜 관계의 안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건설적인 변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커플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효과적인 갈등해결과 커플간의 만족감과 나아가 결혼후의 만족감을 높이게 될 것이다.

1) 프로그램의 목표

본 프로그램은 커플간에 보다 만족스럽고 기능적인 관계를 이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사소통 기술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은 바람직한 듣기 기술과 말하기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듣는 것의 중심적인 것은 원칙적으로 절대적인 긍정적 여감과 수용이다. 이런 유형의 수용은 정직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

말하는 기술은 나-메시지(I-message)사용, (Miller et, al., 1976 ; Stuart, 1980), 자기 노출(Derlega & Chaiken, 1975 ; L'Abate & Sloan, 1984), 느낌보고(이형득, 1982)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듣기 기술과 말하기 기술을 본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으로 관심 기울이기, 의사확인, 지각확인, 자기느낌의 피력, 피드백 전달하기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1) 피드백을 전달한다.

피드백은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 피드백을 잘못 전달하거나 잘못 지각을 할 경우에는 갈등이나 오해

〈시 행 질 차〉

시간배정	활 동 내 용	준비물, 비고
10분	1.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설명한다.	
20분	2. 의사소통과 피드백 주기에 대해 강의한다.	
10분	3.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질문지, 볼펜 〈유인물〉 참조
20분	4. 두사람씩 짝을 지어 관심을 기울이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직접해 보게 하고, 또 입장을 바꾸고 실시하여 두 가지 상황을 다 경험 하게 하고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	질문지, 볼펜 〈유인물〉 참조
5분	5.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확인의 중요성과 의사확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질문지, 볼펜 〈유인물〉 참조
10분	6.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상황을 제시하여 설명한다.	
10분	7. 두사람이 짝을 지어서 한사람은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직접 해보게 하고, 역할을 바꾸어서 해보게 한다.	
5분	8.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	
5분	9. 의사소통을 할 때 지각확인이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질문지, 볼펜 〈유인물〉 참조
20분	10. 상황을 제시하여 지각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한번 실시해 보게 한다.	
15분	11. 의사소통을 할 때 나-메시지를 이용하여 자기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질문지, 볼펜 〈유인물〉 참조
30분	12.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나눠주고 체크하게 한 다음 두 사람끼리 얘기를 나누게 한다.	
20분	13. 그 동안 연습한 의사소통기술 익히기에 대한 효과와 느낀점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5분	14.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간단히 하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를 불러일으킨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우리는 이 피드백을 통해 내가 그에게 비쳐진 모습을 본다. 그러나 피드백은 서로 효과적으로 주고받아야 한다.

② 관심 기울이기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 되며,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어야 한다.

③ 의사확인

의사확인이란 상대방의 생각, 정보, 제안을 그가 의도하는 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 Ivey는 의사확인의 목적으로 첫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둘째, 상대방의 말을 보다 간결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재 진술함으로써 그의 의사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키며, 셋째,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확인해 봄으로써 나의 지각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④ 지각확인

지각확인은 내가 상대방의 느낌과 경험을 제대로 지각하고 있는지 정서적 측면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의사확인의 보충역할을 한다. 상대방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서적 태도를 지각하는 데에는 그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큰 작용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비언어적 행동을 보고 마음대로 추리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확인함으로써 오해를 피할 수 있다.

⑤ 자기 느낌의 피력

나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표현한다. 각자 자기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각자 상대방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 때의 나의 느낌과 동일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은 나-메시지 사용(Miller et, al., 1976 ; Stuart, 1980), 자기 노출(Derlega & Chaiken, 1975 ; L'Abate & Sloan, 1984), 느낌보고(이형득, 1982)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기 느낌을 노출하는 기술은 부부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보다 밀접한 관계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요소이다.

6. 제5과정 : 성역할과 우리의 미래

본 프로그램은 혼전 커플들에게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형성시켜 현사회에서는 성별에 대한 구분을 지나 인간의 가치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고 성별의 구별에 앞서 동등한 인간임을 인식시키고 두사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계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결혼후의 적응을 높이게 될 것이다.

1) 프로그램의 목표

본 프로그램은 커플간의 성역할태도를 체크하고, 그에 따라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서로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검사를 실시하여 자신을 체크한다.

둘째, 상대방과 자신의 검사결과를 두고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토론하여 서로의 모습을 확인한다.

셋째,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과 근대적인 성역할에 대해 토론해 앞으로의 적응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시 행 절 차>

시간 배정	활 동 내 용	준비물, 비교
10분	1.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설명한다.	볼펜, 메모지
10분	2. 성역할 검사를 실시한다.	성역할 검사지
10분	3. 파트너끼리 서로의 검사결과를 토의한다.	볼펜, 메모지
10분	4.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양성성의 개념에 대해 강의한다.	강의록
50분	5. 서로의 역할기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실시한다.	역할기대 검사지
15분	6. 체크리스트를 채집한다.	볼펜, 메모지
20분	7. 서로의 의견에 대해 토론한다.	
5분	8. Role Play에 대해 설명한다.	유인물
40분	9. 두명이 한쌍이 되어 주어진 주제에 따라 역할극한다.	
20분	10. 전프로그램 동안 익힌 성역할에 대해 토의한다.	볼펜, 메모지
5분	11. 바람직한 성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볼펜, 메모지

2)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먼저 자신이 어느 성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 검사지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음은 자신의 성역할 관념을 알고 상대방과 비교한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서로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서로의 성역할개념을 논의하여 앞으로 발전적인 성역할이 무엇이며 서로에게 만족감을 주는 성역할은 어떠한가에 대해 논의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근대적인 성역할에 대해 역할극을 실시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예방하도록 한다.

VI. 요약 및 결론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미래의 부부간의 질과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 부부 또는 가족의 안정성과 만

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현대의 결혼과 가족생활은 점차 개인적 동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가 없어지고, 문제해결능력이나 대화기술이 부족하면 깊은 갈등과 가족해체가 쉽사리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결혼 및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결혼교육의 일환으로 일반화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결혼전상담프로그램, 결혼강화프로그램, 결혼치료(Schumann & Dentor, 1979)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결혼준비강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혼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우선 그들의 요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내용에는 바람직한 결혼가치관 정립, 사랑과 친밀감 유지, 부부간의 대화, 서로의 성격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양가부모와 좋은 관계형성, 양가의 가족관계에 대한 적응, 자녀출산 지식, 건강한 자아상 확립, 성지식, 갈등해결방법 익히기, 가정 경제와 관리에 관한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가족계획, 부부의 역할분담, 구체적 결혼준비순으로 요구도가 나타났다.

둘째, 프로그램 실시 방법에는 실시시기는 결혼 1~3개월 전이 41.6%이고 4~6개월이 33.7%이며, 실시횟수는 1~2회 정도로 이해한다. 요일은 주말(금, 토)이 적당하며 비용은 4만원 이하가 57.9%이다. 실시자는 전문가 또는 훈련된 기혼부부가 좋으며, 실시기관도 사회봉사단체, 대학 또는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에 기대를 한다. 실시장소는 소규모 토의실이 54.6%이나 본인이 속한 직장도 17.1%로 응답했다. 참여단위는 커플 단위가 88%정도이며 강의방법은 사례연구, 토론, 강의후 간단한 토론 방법이 좋겠으며 후속모임도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본 요구도와 연구자의 의도를 종합하여 3시간 기준으로 총 5과정으로 본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다. 제1과정 "소속하기와 독립하기", 제2과정 "결혼생활과 가치관", 제3과정 "성지식", 제4과정 "의사소통훈련", 제5과정 "성역할과 우리의 미래"라는 과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1박 2일 프로그램도 가능하며 5주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결혼준비단계에 있는 미혼자들에게 그들의 요구도를 알아보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체계화 해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행과 평가는 미래의 과제로 남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으로서 내용과 계획으로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나, 경험으로서 프로그램은 수행을 통해 평가를 통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은 커플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추후 연구는 소규모(10쌍 규모) 단위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평가가 난제로 남음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가 추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호주(1969). 미혼남녀 결혼관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2) 공준숙(1987). 미혼남녀 결혼관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3) 김명순(1988). 성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포항지역을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6권 4호.
- 4) 김영주(1985). 자아개념 육성 프로그램에 관한 일 연구. 성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혜석(1990).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6) 안해옥(1987). 미혼 남자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오윤자(1992).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0권 2호.
- 8) 옥선화, 정민자(1994). 결혼과 가족. 도서출판 하우.
- 9) 유영주(1991).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가정생활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 10) 윤가현(1990). 성심리학. 성원사.
- 11)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

- 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4호.
- 12) 이영분(1989). 부모 역할 훈련을 위한 한국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3) 이영실(1990). 부부갈등과 성생활사. 범문사.
 - 14) 이정연(1983). 남편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진주지역을 대상으로-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3호.
 - 15)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1990).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16) 이재연, 최영희(1991).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형설출판사.
 - 17) 이현숙(1990). 부부역할 수행을 위한 교회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 석사학위논문.
 - 18) 조선경(1989).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관계 강화프로그램.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조성덕(1987). 자아정체감 성장 프로그램의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조수동(1987). 결혼상담 진문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Ⅰ).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2호.
 - 22) 최운실(1986). 성인교육유형에 따른 교육참여 특성분석.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3) 최연실외 역(1995). 새로보는 가족관계학. 도서출판 하우.
 - 24) 최지희(1987). 결혼 전·후 환경이 부부관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하상훈(1990). 자아개념 증진프로그램이 자아개념 및 통제소재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6)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1995).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상담 연구소 개소2주년 학술세미나연구보고서 제2권.
 - 27) Arcus, M(1990). Family life Education Curriculum Guidelines : The Nation Council on Family Relation.
 - 28) Arcus, M(1993).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Vol. 1, II. Sage Pub. Inc.
 - 29) Bader, E., Microys, G., Sinclair, C., Willett, E., & Conway, B.(1980). Do marriage preparation programs really work? A Canadian experi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6, 171-179.
 - 30) Bader, E., Riddle, R., & Sinclair, C.(1980). Do marriage preparation programs help? A five year sutudy. 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Medicine.
 - 31) Buckner, Lynn P. & Salts, Conni J.(1985). A remarital Assessment program. *Family Relation* 34, 512-520.
 - 32) Cleaver, G.(1987). Marriage Enrichment by Means of a Structured Communication programme *Family Relations*, 36, 49-54.
 - 33) Darling, C.A(1987). Family education : Handbook of Marriage and Family : Marvin B. Sussman and Suzanne K. Steinmetz. Plenum press. N.Y. 815-833.
 - 34) David & Mace, Vera(1976). The Selection,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Facilitators for Marriage Enrichment programs. *The FamilyCordinator*.
 - 35) Fitzpatrick, J., Smith, T., & Williamson, S.(1992). Educating extension agents : An evaluation of method and development of a remarried family deucation program. *Family Relations*, 41, 70-73.
 - 36) Hof, L., & Millerw, W.R.(1980). Marriage enrichment. *Marriage and Family Review*, 3, 1-27.
 - 37) Kennedy, C.E. & Southwick, J.(1975). Inservice Program for Family Life Educators : cooperative Program with Mental Heath Center and University : *The Family Coodinator* 2492), 193-198.
 - 38) Kohl, J.(1990). Study guide to accompany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s, and families. Mountain View, CA : Mayfield.
 - 39) Larson, J.H.(1988). Family Life Education : The marriage Quiz : College Students Beliefs in Select

- Myths about Marriage : Family Relation, 37(1), 3-9.
- 40) Levin, E.(1988), Development of a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in a Community Social Service Agency : The Family Coordinator 24(3), 343-349.
- 41) Lolyde, Sally A.(1987). Conflict in Premarital Relationships : Differential Perceptions of Males and Females, Family Relationships, 36, 290-294.
- 42) Luckey, e.b.(1979), In My opinion : Family Life ducation Revisited : The Family Coordinator 27 (1), 69-73.
- 43) Mason Richard, L.(1974). Family Life Education in the High Schools of kentncky : The Family Coordinator 23(2). 197-200
- 44) Most, R. & Gueriney, B.(1983),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Training of Lay Volunteer Leaders for pre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Family Relationships, 32, 239 -251.
- 45) Pino, Christopher J : (1983), Development and Aseessment of personalized programa for Marriage preparation and Enrichment.
- 46) Powell, Lane h. & Jorgensen, S.R. (1985), Evaluation of a Church-Based Sexuality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34, 475-482.
- 47) Schumn, Walter R.(1983), Theory and Measurement in Marital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amily Relations, 32, 3-11.
- 48) Stahmann, R., & Hiebert,W.(1984). Process and content in prewedding counseling. In R. Stahmann & W. Hiebert(Eds.), Counseling in marital and sexual problems(pp.237-248). Lexington, MA : Lexington.